



광주 북구 두암동 말바우시장(동) 정류장에 설치된 스마트쉼터가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뉴스시스

에어컨 설치 버스정류장... “왜 우리 동네엔 없어요”

폭염 속 에어컨이 설치된 버스정류장(스마트쉼터)이 교통약자들로부터 각광받고 있지만 광주 지역별 설치 편중화가 심하고 향후 설치 계획도 불투명한 자치구가 있다.

적극적인 공모사업 참여 등을 통해 때이르고 긴 폭염과 같은 기후 변화에 발맞춰 스마트쉼터를 확대 설치할 필요성이 떠오른다.

13일 광주지역 5개 자치구에 따르면, 지역내 시내 버스승강장 중 자치구들이 관리하는 스마트쉼터는 총 56곳이다.

광산구가 24곳으로 가장 많고 남·북구가 14곳으로 동일, 동·서구가 각각 단 2곳에 그친다. 광주지역 전체 정류장이 2378곳인 것을 감안하면 2.35%에 불과하다.

스마트쉼터는 각종 편의시설을 갖춘 버스승강장이다. 에어컨과 에어컨터, 난방기, 병온열 의자 등 냉난방시설은 물론 와이파이(WiFi)와 휴대전화 충전기 등 시설을 갖췄다.

광주 총 56곳 설치... 광산구가 24곳 가장 많아 남·북구 각 14곳, 동·서구 2곳... 역대 예산 ‘부담’

승강장마다 다르지만 미세먼지를 피할 수 있도록 공기청정 시스템이 설치돼 있거나 경찰서와 연결된 비상벨·통화장치, 24시간 가동되는 내외부 방범 폐쇄회로(CC)TV, 응급 환자를 위한 자동심장충격기(AED) 등이 설치된 곳도 있다.

자치구들은 지난 2020년 초부터 미세먼지위험 저감 등을 배경으로 스마트쉼터 설치 사업에 나섰다. 저마다 공모사업 참여,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스마트쉼터 개수를 늘려왔다.

현재 가동중인 스마트쉼터 중에는 광주 시로부터 이관받거나 기업 등기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아 설치된 것들도 있다.

그러나 역대에 가까운 관련 예산 확보가 어려워 자치구별 설치 편중화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스마트쉼터가 가장 많은 광산구는 공모사업 참여 성과와 특별교부금을 설치에 활용했다. 2021년부터 2023년 사이 지역발전 투자협약 시범사업 선정, 기후변화로 인한 버스 승객 보호 차원 특별교부금 활용을 통해 24곳까지 늘릴 수 있었다.

반면 스마트쉼터 개수가 가장 적은 자치구 중 하나인 동구의 자체 설치 시도는 2023년 주민참여예산으로 도입한 남광주역 스마트쉼터 한 곳에 그친다. 나머지 한 곳은 지난 2020년 광주시가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당시 조선대 버스정류장에 설치한 스마트쉼터를 이관받아 운영 중이다.

서구도 올해 초 자체 예산을 마련해 서창농협과 풍암저수지에 각각 한 곳씩 스마트쉼터를 설치했지만 편중화 해소에는 역부족이다.

이밖에 기부채납으로 설치된 스마트쉼터들은 북구(7곳)에 가장 많았다. 그러나 대체로 산단 중심으로 설치돼 있어 일반 교통약자들이 이용하기 쉽지 않은 단점도 있다.

때이르고 긴 폭염 속 스마트쉼터 설치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면서 자치구도 재원 마련에 고심이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내부 면적 등 규모별로 설치 예산이 다르지만 대체로 한곳당 5000만 원에서 1억 원 사이다. 설치에는 여러 조건이 들겠지만 아무래도 가장 큰 부담은 예산인 탓에 설치 계획이 불투명한 곳도 있다”고 토로했다.

다른 자치구 관계자도 “우리 아파트 주변에도 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는다. 난관이 많지만 장기적인 주민 편의 관련 문제 만큼 해결이 필요해 보인다”며 “설치가 가능한 구간을 조사하고 올해 하반기 예산 여건을 고려해 추가 설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박도일 기자

17개월 만에 의대생 돌아오지만 ‘유급 구제·교육 정상화’ 과제 산적

전남대·조선대 학년말 유급처리... 본과생 50%이상 유급 대상 특혜 시비 불거피... 휴학생 대거복귀에도 교육인프라 그대로 24·25·26학번 수업 물리는 ‘트리플링’ 우려... “후속 대책 중요”

의과대학 증원에 반대해 집단 휴학에 나선 지 17개월 만에 의대생들이 전적 복귀하겠다고 했지만 각 대학 학사정상화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13일 지역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전날 “학생 전원이 학교에 돌아감으로써 의과대학 교육·의료체계 정상화에 힘쓰겠다”고 전격 선언했다.

지난해 2월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대하며 집단 휴학한 지 17개월, 1년5개월 만이다.

다행히 지나긴 의정 갈등의 출구는 찾았지만, 일선 대학에서 돌아온 의대생들의 학사 정상화까지는 풀어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다.

전남대·조선대 의대의 경우, 그동안 수업에 불참해왔던 의대생들의 유급·제적 처분을 학년 말로 연기했다. 수업 이수 미달 등 유급 대상자에 대한 개별 통보까지 마쳤지만 행정상 공식 처리는 일단 미뤄 놓은 셈이다.

전남대 의대 재학생 737명, 조선대 의대 697명 중 현재 수업 참여율은 10%대를 걸고 있다. 이대로라면 지역 의대생 대다수가 유급 또는 제적이 불가피하다.

국회 교육위원회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달 공개한 국립대 의대 유급·제적 현황을 보면 전남대 의대는 예과생 중 89% 가량이 학사 경고 대상자다. 본과생은 357명 중 183명(51.26%)이 유급 대상으로 분류된다. 정확히 집계되지 않은 조선대 의대 역시 집단휴학 참여율을 고려하면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최종 유급 처리는 되지 않았지만 정부가 학사 유연화 또는 특례로서 북구 의대생의 퇴로를 열어줘야 하는 상황이다.

다만 정부·대학의 설득에도 휴학을 고수한 학생과 강의실을 지킨 의대생

간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밖에 없다. 북구 의대생·전공의에 대한 특혜 시비로 번질 수도 있다.

의대 학사가 대체로 1년 단위인 점을 감안하면, 1학기 수업 일수가 부족한 학생이 당장 2학기에 복학하기도 쉽지 않다.

행정 절차 상 유급을 면하고 강의실로 돌아온다고 해도, 더 큰 문제는 의대 교육의 질이다.

24·25·26학번이 한 번에 한 학년에서 수업을 듣는 초유의 ‘트리플링(tripling)’ 사태가 벌어지면 의대 교육 전반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 수준(3058명)으로 줄인 상황이지만, 의대마다 각 학년 이수 과목 이수대상자가 수업 정원을 웃돌 수 밖에 없다.

2025학년도 한 해에만 4500여 명이 이미 의대에 입학한 상황이지만, 증원에 맞춰 뒤따라야 할 의대 교원 확충·교육 시설 증설은 의정갈등 국면에서 답보 상태였다.

1년 넘게 파행을 빚은 의료교육이 정상화하려면 일선에서 크고작은 혼선은 불가피하다.

지역 의료계 관계자는 “의대생들의 복귀는 환영할 일이지만, 실제 유급 요건이 된 학생 다수의 학사행정 문제를 해소하려면 각 대학 차원 해법으로는 불가능하다. 정부가 의대생단체와 머리를 맞대고 대응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실상 예과 과정을 제대로 이수 못한 24학번, 정원이 급증한 25학번, 올해 신입생까지 잘 추스리고 의대 교육을 정상화하려면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화의 물꼬는 댔지만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한 여러 후속 대책들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승원 기자

구례군에 기부하고 세액공제도 받으세요

구례 고향사랑 기부제

기부금 사용처

- ✓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및 청소년 육성·보호
- ✓ 지역문화·예술·보건 등 증진
- ✓ 주민복지 증진사업 등

구례고향사랑기부제란?

구례군이 아닌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둔 개인이 구례군에 기부하고, 구례군은 이를 모아서 주민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사용하는 제도

기부한도액

1인당 연간 2,000만원 한도, 법인불가

기부혜택

혜택 1 세액공제
10만원까지는 전액 공제 (10만원 초과분은 16.5% 공제)

혜택 2 답례품 제공
기부금의 30% 이내
- 구례사랑상품권
- 구례특산물(흑돼지, 한우, 천연벌꿀 등)

기부방법

온라인

은행이플로도 가능해요

국민

신한

하나

하나

기업 하나

고향사랑e음 바로가기

기부부터 답례품 배송까지 원스톱으로! 자동 세액공제까지!

오프라인

전국NH농협 방문 → 기부금 납부 → 답례품 주문하기

문의 구례군 총무과 061-780-2307